

추석 명절이 더 바쁜 영광 모시잎 송편 원조 서울떡집 성맹순씨

## 휘영정 한가위 ‘고향의 추억’을 드세요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송편을 먼저 떠올린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송편을 빚으며 정답을 나누는 모습은 추석의 행복한 기억 중 하나다. 송편 중에서도 영광의 명물로 자리잡은 모시잎송편은 월빙 바람을 타고 전국적인 인기상품이 됐다. 보통 송편보다 2~3배 큰 크기를 자랑하는 모시잎송편은 한 입 먹었을 때 모시의 향이 솔솔 퍼질 뿐 아니라 식어도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유지되어 특별한 송편으로 인기가 좋다.

“30년 전에도 지금처럼 인기가 좋았지. 장날이면 하루 100만원이 치도 넘게 팔았으니까.”

영광 모시잎송편의 원조 서울떡집 성맹순(72·영광군 영광읍을 남천리) 할머니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아릿한 기억이 떠오른다.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8남매를 키우기 위해 모시잎송편을 시장에 내다 팔았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영광에서 32년째 모시잎송편을 만들고 있는 성 할머



영광 모시잎송편의 원조인 서울떡집의 성맹순(사진 왼쪽) 할머니가 송편을 직접 손으로 만들고 있다. 32년째 만들고 있는 성 할머니표 모시잎송편의 비결은 손 맛이다. /영광=조의상기자 ischo@kwangju.co.kr

나는 이 지역에서도 원조라고 불린다.

“기계로 빚을 그 맛이 안 나. 손으로 직접 빚어야 제 맛이 나제.”

성 할머니표 모시잎송편의 비법은 손 맛이다. 30년 전 전부터 빚어온 모시잎송편은 지금도 여전히 직접 손으로 빚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성 할머니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출 수 없어 한때 기계를 도입했었다”며 “하지만 맛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손님들의 지적에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직접 손으로 모시잎송편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성 할머니표 송편은 모시잎과 맵쌀의 반죽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손 맛과 반죽의 비율,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결합해 원조 모시잎송편 맛이 나온다.

고집스럽게 전통의 맛을 살리고자 하는 할머니의 정성은 추석이 되면 서울, 제주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최근에는 평일에 비해 매출이 30% 가량 증가했다. 특히 모시잎송편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전인 5년 전에 비하면 무려 10배 가까운 매출이 오른 것이다. 추석 떡량을 맞추기 위해 하루에 2만여 개의 송편을 만드는 샘이나 일시 직원까지 고용해 20여명이 달려들어 송편을 만들고 있다.

성 할머니는 “자식들 입에 풀칠하지 않기 위해 만든 송편인데 이젠 우리 식구 뿐 아니라 다른 식구들까지 먹여살리고 있으니 이보다 더 맛있고 행복한 송편이 어디 있겠나”라며 “모시잎송편을 만들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영광 특산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상기자 kps@kwangju.co.kr  
/영광=조의상기자 ischo@kwangju.co.kr

## 31사단,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 표창’ 받는다

향토 사단인 육군 제31보병사단(사단장 모종화·사진)은 1일 ‘전군 61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다.

31사단은 올해 해안경계와 교육훈련, 예비군훈련, 부대관리 등 국방임무 수행 부문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특히 31사단은 올해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를 전후로 연인원 6천여명을 투입해 수색정찰, 철야 및 복작전 등 800여회에 걸친 경계작전을 수행해 눈길을 끌었다.

31사단은 또 연간 35만명의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쌍방형



서바이벌 훈련과 성과위주 훈련을 위한 측정식 훈련 등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31사단은 지난 7월 침수피해를 겪은 전남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11일간 7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수해 복구에 나서는 등 대민 지원에 도 힘을 쏟았다. 31사단은 지난해 1월 통합방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지난 1954년 창설 이래 16차례의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 이희호 여사 ‘옥중서신 2’ 출간

이희호 여사는 1970~1980년대 수감 중이던 남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책 ‘옥중서신 2’(시대의장 폐막)가 출간됐다.

이 책은 김 전 대통령이 고소에 있을 때 이 여사에게 보낸 편지와 메모를 둘러 최근 증보, 출간한 ‘옥중서신 1’에 이은 것으로, 이 여사의 미공개 편지들을 묶은 것이다.

1장에는 이 여사가 1972~1973년 미국과 일본에 망명 중 어떤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들이, 2장에는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1977년 진주교도소에 갇힌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이 담겼다.



## 조선대 객원교수 임용

유태명 광주시 동구청장은 최근 조선대 정책대학원 차지행 정과 2009년도 2학기 객원교수로 임용됐다.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 트로트 가수 정식 데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트로트 가수로 정식 데뷔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KT아트홀에서 자신의 4집 앨범 ‘희망’ 발매기념 공연을 벌였다.



‘세이브 더 월드런(Save the Children KOREA)’ 아동기금마련을 위한 이날 공연에서는 인기 걸그룹 티아라(T-ara), 미스 에스(Miss S)와 남성듀엣 원투(One Two), ‘수와진’, 박상민, 그리고 신인가수 에그 등이 게스트로 우정 출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05년 9월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음반 제작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음반을 내면서 정식 가수로 데뷔했으며, 당시 국회에서 첫 콘서트를 가져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 광주과기원 노인의 집 등에 성금



광주과학기술원(원장 선우중호)은 최근 퇴임 복지재단과 태니노인의 집 등 복지시설을 방문해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기장, 장애우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 화순전남대병원 복지시설에 쌀 전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범희승)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 보호시설인 화순사립의 집과 독거노인 복지시설인 반석복지회를 방문, 각각 쌀 240kg을 전달했다.

## 광주은행 ‘사랑샘터 1호점’ 후원물품



광주은행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30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 이동복지시설인 신애원을 ‘KJB 사랑샘터 1호점’으로 선정하고 광은리더스클럽과 함께 400만원의 성금과 쌀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영세장애인 선물



광주장애인총연합회(회장 정병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영세장애인 300세대를 대상으로 각각 쌀 300포대(20kg)와 명절선물을 전달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제공〉

## 전문건설협회 소년소녀 가장에 위문품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차주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9명의 소년소녀 가장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 오치2동 주민자치위 불우이웃 생필품



광주시 북구 오치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술)와 새마을협의회(회장 류기선), 전우근 광주시의원 등은 최근 어려운 이웃 162세대를 방문, 생필품을 전달했다.

## 화순 동아에스테 독거노인에 위문금품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동아에스테는 추석을 맞아 최근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2개소에 햅쌀과 과일을 전달했다.

## 농협화순군지부 노인복지센터 쌀



농협화순군지부(지부장 류철현)는 추석을 맞아 최근 전 직원들이 화순군노인복지센터와 독거노인 무료급식소인 ‘연꽃세상’에 10kg 쌀 40포대를 최근 전달했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촉

▲박운호·박옥자씨 차남 종구군 신영옥(조선일보사 광주공장 발송부)·손정희씨 차녀 서경양=10일 (토) 오전 11시40분 메리어트웨딩 1층(파이어홀)

▲최길성·윤혜성씨 장남 승용군 김영배·양기연씨 차녀 명화양=10일(토) 낮 12시20분 광주 오텔리아 웨딩홀 1층.

### 동창·동문회

▲옥과초등학교 총동창회 임시총회(추진위원장 김계중)=2일(금) 오후 4시 옥과초교 대강당. 011-601-4090.

▲대촌중 제11회 동창회(회장 송운근) 추석 정기총회=2일(금) 오전 11시 모교운동장. 011-610-4706.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이룸운영회 동호회 모집=기초부터 학습, 물권, 채권, 권리분석,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동분석, 현장답사 직장인 스터디를 통한 체계적 교육. 011-607-4614.

▲사랑의 학교 문예 한글과정 자원봉사(여)교사 및 학생 모집=성인 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급검정 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9시~12시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 모집=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 모집=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 모집=전통문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 부 음

▲임종근씨 별세 영주·선희·소영·소희씨 부친상=발인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장덕순씨 별세 정희영·회안·회갑·학순·화순씨 모친상=발인 1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김일례씨 별세 문정운·장근·영임씨 모친상=발인 1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